

3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도덕과: 생활과 윤리 사회과: 통합사회
	핵심 개념 및 용어	인공지능, 인간, 기계, 소통, 감정, 결정 능력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컴퓨터 공학 분야에는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일라이자는 1960년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컴퓨터 공학자 조셉 바이젠바움(Joseph Weizenbaum)이 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든 챗봇의 이름이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 역할을 모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환자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말의 일부를 활용하여 의문문으로 변형한 다음 되묻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제 남자 친구가 저를 여기로 오게 했어요.”라고 하면 일라이자는 “당신의 남자 친구가 당신을 여기로 오게 했다고요?”라고 사용자의 말을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한다. 또한 “그 친구가 저보고 오랫동안 우울해 있네요.”라고 하면 “당신이 우울해 있다니 슬프네요.”라고 대답한다. ‘우울하다’라는 단어에 미리 대응시켜 놓은 ‘슬프다’를 덧붙인 반응이다. 일라이자와 대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라이자에게 애착을 느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라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일라이자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일컫게 되었다. 일라이자 효과는 기계의 단순한 ‘공감하는 시늉’도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여지며 심지어 치유의 기능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알고리즘: 정보 통신 분야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제시문 (나)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 이것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을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바로 이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스스로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제시문 (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에서 인간은 머리에 플러그가 연결된 채 기계가 구현한 가상 세계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이 가상 세계를 실제로 인식한다. 현실 세계로 빠져나온 모피어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오에게 네오가 살고 있는 가상 세계의 실체를 알려주려고 그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네오 :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다구요?

모피어스 : 그렇게 믿기가 힘든가? 네 옷도 바뀌었고 머리와 몸에 있었던 플러그도 사라졌어. 네 머리를 봐. 지금 네 모습은 전자화된 이미지이지.

네오 :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피어스 : 그럼, 진짜가 뭔데? 너는 진짜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네가 생각하는 진짜가 촉각이나 후각, 미각, 시각을 뜻하는 거라면 그건 단순히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해.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하지. 우린 그걸 매트릭스라고 해. 한 가지 확실한 건, 인류는 21세기의 어느 시점에 모두 경탄하면서 A.I.의 탄생을 축하했었다는 거야.

네오 : A.I.라면 인공지능?

모피어스 : 기계 집단을 생산해낸 의식체계였지. 매트릭스가 뭘까?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야.

제시문 (라)

인간이 로봇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로봇이 인간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한 사람 이상이 연관된다. 로봇에게는 최종 소비자가 있고, 그 최종 소비자는 어쩌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 가정을 돌보는 가정 로봇이나 여러 승객을 다양한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자동차, 부서 전체에 배정된 사무보조 로봇 등이 그렇다. 여기에는 설계자도 있는데, 그 역시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와 인간이 운전하는 운송 수단,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한다. 수많은 사람의 요구가 상충할 때 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3. 출제 의도

<문제1>은 인공지능이 점차 발달하여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가는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각각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4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지문들은 관점 상 특정한 순서나 연결을 갖지 않은 채, 다양한 관점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또한, 문제에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라고 하였으므로, 학생이 기존에 배웠을 인간과 기계 상호 간의 지배나 종속, 로봇 시대의 도래에 대한 비관론이나 낙관론 등과 같이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이해보다는 각각의 제시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문맥을 이해하고 그 속에 드러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각각 들어 있는 내용의 요지와 문맥을 파악하되 이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사실적 이해와 각각 다른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파악하는 추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인간과 기계의 관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편의 완결된 글을 작성하는 글쓰기 구성 능력을 요구한다.

제시문 (가)는 박현아의 『인공지능, 말을 걸다』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부분은 ‘일라이자 효과(Eliza effect)’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일라이자는 컴퓨터 공학자 조셉 바이젠바움이 개발한 상담 치료용 챗봇이다. 이 기계는 사람이 한 말을 이용하여 되묻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진 기계인데, 이 기계와 대화하는 인간은 기계가 보여주는 단순한 반응에도 그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인간과 기계의 교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으며 기계가 가진 인간과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국어』 교과서에 실린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글을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인간과 기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차이점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지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인간은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으로, 『(고등학교)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영화 소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고, 실제 영화의 대사 중 일부를 발췌 편집하여 실었다. 제시된 장면은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깨달은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를 만나 '매트릭스'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으로,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나 통제라는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의 풍경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그것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제시문 (라)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엮고 김보은이 옮긴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Possible Minds)』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앤카 드라간(Anca Dragan)의 글 「인간을 인공지능 방정식에 끼워 넣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 로봇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2) 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 (라)
		(3) 쓰기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5) 문학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2	(3) 작문의 원리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3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나) (다) (라)
	(3) 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4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다)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5	(4) 과학과 윤리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문제 제시문 (가) (나) (라)
	(4) 과학과 윤리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6	(9)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시문 (나)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국어	신유식 외 9인	미래엔	2018	308-310	제시문 (나)	○
(고등학교)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5인	미래엔	2019	40	제시문 (다)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인공지능, 말을 걸다	박현아	스리체어스	2020	54	제시문 (가)	○
매트릭스(The Matrix)	릴리 워쇼스키, 라나 워쇼스키	-	1999	-	제시문(다)	○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인간을 인공지능 방정식에 끼워 넣기)	존 브록만 엮음 (엔카 드라간)	프시케의숲	2021	228-229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문제 1>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을 담고 있는 4개의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의 선입견이나 이분법적 구도를 배제하고자 각각의 지문들을 관점에 있어서 특정한 순서를 갖지 않도록 배열하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속에 다르게 담겨 있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에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 자신이 판단한 논지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완결된 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박현아의 『인공지능, 말을 걸다』라는 책에서 일라이자 효과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췌한 글로, ‘(기계에 대한) 애착’, ‘정서적 교감’, ‘이해와 공감’ 등의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이 글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읽어내야 한다. 제시문이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 연결의 가능성과 인간에 대한 기계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었는가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국어』 교과서에 실린 구본권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발췌,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인간의 능력’,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 등을 핵심 어구로 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때 인간은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 글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고, 고통과 곁핍에 대응하여 인간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결코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은 이 제시문을 읽을 때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이라는 관점보다는 기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휘해야 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나 가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으로, 우선 『(고등학교)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줄거리 요약과 실제 영화의 대사 중 일부를 발췌, 재구성하였다. 제시된 장면은 ‘매트릭스’라는 가상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깨달은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를 만나 ‘매트릭스’에 대해 대화하는 부분이다. ‘가상 세계’, ‘현실 세계’, ‘실재’ ‘인공지능’,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 등이 내용 파악을 위한 핵심 어구이다. 네오가 자신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인 매트릭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부분, 그리고 모피어스가 기계 시스템이 극대화된 인공지능(A.I.)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인류가 인공지능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부분 등을 실어서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 같은 비판적 시각보다는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의 관점을 보여주려 하였다. 학생들은 이 글에 담겨 있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연결이 고도화되어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루는 전체 글의 논지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엮고 김보은이 옮긴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바라보는 석학 25인의 시선(Possible Minds)』라는 책에 실려 있는 앤카 드라간(Anca Dragan)의 글 「인간을 인공지능 방정식에 끼워 넣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로 ‘인공지능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의 요구의 상충’, ‘요구의 통합’ ‘결정’ 등이 내용 파악을 위한 핵심 어구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 로봇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이 글에서 기계가 인간들이 가진 수많은 요구들을 통합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1	<p>■ 기본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는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 사이에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현대에 로봇은 단순한 기계 시스템으로도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이 기계와 달리 지니고 있는, 인간만의 특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언급한다. 이는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된 것으로써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제시문 (다)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대화의 일부분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매트릭스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가상 세계이다. 기계가 인간의 감각까지도 구현하는 정도까지 발전된 기계화된 사회에서 인간과 기계는 구분되지 않는다. 기계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기계가 되는 미래의 세계를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으며, 로봇은 인간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배점 기준은 제시문 (가)의 분석에 25%, (나) 20%, (다) 25%, (라) 20%를 부여하고, 글의 전체적인 논리의 완성도에 10%의 배점을 부여한다. 제시문 (나)와 (라)는 유사한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글로 분석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각각 20%의 배점을 부여한다. 제시문 (가)와 (다)는 일종의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므로 각각 25%의 배점을 부여한다. 이 문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지, 기계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판단, 향후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당위적 방향 제시,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로봇에게 어디까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기보다는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각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또는 인공지능 시대 기계의 역할,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인터페이스) 등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제시문 (가), (다)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 적어지거나(제시문(가)) 없어지는(제시문(다)) 내용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다)에서 제시문 (가)는 인간과 기계가 동반자가 되어가는 현상이며, 제시문 (다)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없어지는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라)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기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지문으로서,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의 통합적 결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5. 제시문 (다)에서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 노예가 된 인간, 인공지능의 통제, 인류의 멸망,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의 관점을 서술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6. 기계 사회를 보는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거나, 흑백논리를 강조한 이분법적 구도로 분석한 경우, 전체 논지에서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 기계 만능주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는 감점한다.
7.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보는 여타의 관점에 대하여, 학생이 명료성과 타당성, 창의성을 띤 답안을 작성한 경우 채점자의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다.

제시문	핵심 내용	제시문의 분석 내용	배점
(가)	인간의 교감 대상으로서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 감정적 소통, 애착, 이해, 공감, 치유하는 관계 • 인간과 기계의 공존 가능성 	25%
(나)	인간과 기계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자 고유한 특성 - 감정, 의지, 유연성, 창의성, 결핍 • 결핍과 고통을 강조한 나머지 비관론적 결론을 내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20%
(다)	인간과 기계가 구분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된 이미지, 전자신호, 신경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A.I., 컴퓨터가 만들어낸 매트릭스의 세계 • 기계화된 인간 - 인간은 머리에 플러그가 연결되어 기계처럼 살고 있음. • 기계 시스템이 극대화된 인공지능(A.I.)의 세계 • 인간은 기계에 의해 시뮬레이션된 가상 세계를 현실로 인식함. • 인공지능은 기계 집단을 생산해낸 의식체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 노예가 된 인간, 인공지능의 통제, 인류의 멸망,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기계 사회를 보는 지나친 비관론이나 낙관론의 관점에서 서술하거나, 흑백논리를 강조한 이분법적 구도로 분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 가상·현실 논쟁을 중심으로 서술한 답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부여함. 	

(라)	인간과 기계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한계 -통합적 결정 능력의 부재 •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의 결정 능력 • 일방적인 인간의 우위성이나 기계 폄하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함. 	20%
전체 글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문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차별점을 두어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계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판단,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당위적 방향 제시, 인공지능 발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로봇에게 어디까지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의 윤리적 관점을 서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제시문을 나누어 묶는 방식으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각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기계가 지니지 못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 또는 인공지능 시대 기계의 역할, 인간과 기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계(인터페이스) 등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글에 높은 배점을 부여함. •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여야 함. 제시문의 분석 순서는 글의 논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제시문들에 제시된 것 이상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발휘하거나, ‘낙관론’이나 ‘비관론’ 내지 ‘지배’나 ‘종속’ 같은 이항 대립적 구도를 내세워 각 제시문의 논지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함. •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명료하고 타당하며, 창의성 있는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함.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해야 함.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음. 문단 구분을 전혀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음. 	10%

7. 예시 답안

인공지능 시대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간과 기계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가)는 일라이자 효과에 관한 글로 인간과 기계가 감정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 현대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 시스템만으로도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해져 인간의 동반자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고도화되면 제시문 (다)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공존하여 현실 세계가 사라진 가상 세계가 중요하게 도래될 수도 있다. 기계가 인간의 감각까지 실재화할 정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과 기계는 구분되지 않으며, 미래에는 인간이 기계의 일부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고도화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다. 제시문 (라)에서처럼 기계는 인간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힌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가 최첨단으로 발달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는 고통과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기계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기계는 서로 교감하면서 공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갈 것이다. 이때 인간은 기계가 갖지 못한 고유한 특성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4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도덕과: 생활과 윤리 사회과: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핵심 개념 및 용어	합리적 선택, 비용, 편익, 정의관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마)의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문 (사)와 (아)에 나오는 갑과 을의 사례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선택을 실행하는 데 드는 돈, 시간, 노력 등과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편익은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금전적인 것은 물론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수요를 형성하여 시장의 가격 결정이나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은 많이 팔리고, 그렇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의 행동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 소비자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 윤리적인 가치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제시문 (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적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즉,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절로 국부가 증진되고 풍요로움이 확대되어 공동선이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방, 법질서 유지, 공공재 건설 및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더 이상의 개입이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에게 이와 같은 미덕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시문 (사)

이상고온에 따른 연이은 불볕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나자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함께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A국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하였다.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본인 설치비 부담률은 20~30%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단독 주택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중 자가 부담액은 원래 460만 원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위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가구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 대비 매년 약 10%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예산 소진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구의 수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A국의 시민 같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보조금 지급 중단 소식을 듣고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도별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신규 설치 가구수>

(단위: 가구)

연도	2018	2019	2020	2021(예상)
가구수	1,090	1,200	1,350	970

제시문 (아)

대다수의 국가는 기후 변화 대응 조치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B국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자체 개발한 '탄소 저감 기술'을 이용해 재배한 농산물에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인증제 시행으로 지난해 B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총 7만 톤가량 감소하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사과이다. 1,500곳의

사과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가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농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농가의 경우 사과 1kg을 생산할 때 평균 400g의 탄소가 발생하는 반면, 저탄소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84g의 탄소가 발생한다. 3kg짜리 사과 한 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사과는 생산 과정에서 1,200g의 탄소가, 저탄소 사과의 경우에는 852g의 탄소가 발생한다. 저탄소 사과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30%가량 높다. 높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환경 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저탄소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제시문 (마)는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와 <경제> 과목에서 다루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다루는 두 가지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윤리적 정의론을 경제적 개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시문 (사)와 (아)에 기술된 개인의 결정을 제시문 (마)에서 설명된 경제적 개념과 제시문 (바)의 두 가지 정의론에 따라 분석하여 합리적 선택 여부와 어느 정의관에 부합하는지를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2 제시문 (마) (바) (사) (아)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2	(3) 작문의 원리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3	(1) 독서의 본질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마) (바)	

	<p>(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p>	
	<p>(3)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사) (아)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4	<p>(3) 사회와 윤리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할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p>	제시문 (바)
	<p>(5) 문화와 윤리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p>	제시문 (마)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관련
성취 기준 5	<p>(5) 시장경제와 금융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p>	문제 제시문 (마) (사) (아)
	<p>(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p>	제시문 (바)
	<p>(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p>	제시문 (사) (아)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5	<p>(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p>	문제 제시문 (마)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사) (아)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7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사) (아)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	2019	22-25	제시문 (마)	○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4인	비상교육	2019	17-21		○
(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4인	미래엔	2019	15-21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교육	2018	132-143		○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8	130-139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18	140-147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168-172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8	167-171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18	164-167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인	비상교육	2018	175-179		○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인	미래엔	2018	170-173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18	184-189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저탄소 농산물, '진짜' 저탄소는 아니었네 ¹⁾	강명윤 기자	조선일보	2021	-	제시문 (아)	○

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20/KB3OMRJKEFGOPAMF7PGTZTNMSM/

5. 문항 해설

제시문 (마)는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을 제공한다.

제시문 (바)는 정의에 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저절로 국부가 증진되고 공동선이 실현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반대로 개인이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와 (아)에서는 각기 다른 개인의 소비 사례가 제시되었다. 합리적 선택의 개념과 제시문 (바)의 두 가지 정의관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 각기 다른 소비가 이루어진 이유와 의미가 설명될 수 있다. 즉, 개인의 주관적 편익과 비용의 비교 또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문제 2	<p>■ 기본 평가 기준</p> <p>※ 문제 2는 경영 대학,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문제 1의 2배를 배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마)에 기술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서술하는 부분에 15%, (바)에서 기술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사)와 (아)에 나타난 개인의 선택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데 각각 30%, 45%, 논리의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채점 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제시문 (마)	합리적 선택의 의미	-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를 선택하는 것	15
제시문 (사)를 (바)의 관점에서 분석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해 여부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상	10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정의관 적용	- 비용과 편익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발전기 설치가 친환경적임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어 비용을 줄일 수 없게 되어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 선택에 해당하며,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부합 ※ 비용과 편익의 비교 과정을 서술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소비로 단순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 낮은 점수 부여 ※ 윤리적 소비가 아니므로 합리적 소비(또는 선택)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 정답 아님	20
(아)를 (바)의 관점에서 분석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이해 여부	- 인간이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행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사상	10
	비용과 편익의 비교 및 정의관의 올바른 적용	- 환경 보호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효용이 커져서 비싼 가격도 기꺼이 감수했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과를 구매한 것이 되므로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합리적 소비 - 개인의 편익은 일반 사과를 구매할 때와 변함이 없어 비용 증가가 편익을 넘어섰음에도 저탄소 사과를 구매한 경우는 합리적 소비라 볼 수 없고,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른 윤리적 소비에 해당 ※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무조건 윤리적 소비라고 기술하는 경우 감점 ※ 상기 두 개 항목(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중 하나만 서술하면 감점	35
전체	논리적 완성도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7. 예시 답안

제시문 (마)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선택에는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 평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하였을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 이외에도 심리적인 만족도 포함한다.

경제주체의 하나인 소비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주는 상품을 사려고 하고, 이러한 활동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선택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공동체주의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더라도 공동선을 위해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제시문 (사)와 (아)의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나 개인의 선택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시문 (사)에서 값싼 태양광 설치로 인한 편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중단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발전기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소비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제시문 (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환경 보호에 참여하여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효용이 커져서 비싼 가격도 기꺼이 감수했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사과를 구매한 것이 되고,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합리적 소비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편익은 일반 사과를 구매할 때와 변함이 없어 비용이 편익을 넘어섰음에도 저탄소 사과를 구매한 경우는 합리적 소비라 볼 수 없고,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따른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